

# 협회소식

## NEWS

### 본회, 제6차 이사회의 개최



본회는 지난 9월 24일 본회 5층 대회의실에서 제 6차 이사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의는 김재철 회장직무대행을 비롯 16명의 이사가 참석했다. 이사회에서는 회장 직무대해 체제에 따른 제반 문제와 양돈업계 불황 타개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한편 이사회의는 제 2검정소의 시설 개선 보수 사업에 필요한 자담금중 부족한 금액 4천 2백만원을 기채하는 것에 대하여는 검토한 후 추후 처리기로 했다.

이사회회의에 앞서 본회 노영한전무는 최근의 양돈산업 동향과 전망에 대해 설명했으며, 각 부서장들은 부서별 사업실적을 보고했다.

### 본회, 돼지고기 품질향상 세미나 성황리에 마쳐

#### - 도축장에 HACCP 적용시 돼지고기 품질관리 필수

본회가 지난 9월 17일부터 9월 23일까지 서울, 이천, 김해, 광주등지에서 실시한 돼지고기 품질향상 세미나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세미나의 주요 내용은 미국 네브라스카 대학의 로버트월스 교수가 미국 양돈협회에서 시행중인 돼지고기 품질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돼지고기의 품질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본회 노영한전무는 최근 양돈산업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강의했다.

로버트 월스 교수가 소개한 돼지고기 품질인증 프로그램(PQA)은 미국 양돈협회가 돼지고기의 품질향상을 위해 1989년부터 농가에 자발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주된 내용은 돼지고기내 잔류물질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로 구성되어 있다. PQA 프로그램은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1단계는 동물약품 사용법 등 유해물질 방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2단계는 양돈농가에 대해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다.

3단계는 품질인증 돼지고기 생산을 위한 10가지 중점관리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로버트 윌스 교수는 이번 세미나에서 “미국 양돈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2000년까지 육류중에서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소비시키는 것”이라며 “PQA 프로그램의 적용으로 양돈농가들은 돼지고기에 대한 안전성이 여론에 오르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미국 양돈인들이 벌이고 있는 돼지고기 품질인증 프로그램도 양돈인들이 조용히 수행하고 있을 뿐 돼지고기 소비홍보 전략에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도축장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양돈농가도 반드시 농장에서 HACCP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미국의 양돈인들은 모두 PQA 프로그램을 돼지생산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브라스카주의 양돈인들은 현재 50% 정도가 PQA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으며 올해 말에는 100% 모두다 PQA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돼지고기 품질인증 프로그램(PQA)은 HACCP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 본회, “축산분뇨처리용 전기 농사용 적용” 건의

### -농림부, 분뇨처리용 전기 농사용 적용 추진

본회는 지난 10월 1일 가축분뇨처리에 사용되는 전기를 농사용으로 적용해 줄 것을 농림부 장관에 건의했다. 축산농가에서 사용하는 전력은 농사용 병을 적용 받아 왔으나, 최근 한국전력이 영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축산폐수처리시설에 사용되는 전기를 산업용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같이 건의했다.

본회는 건의문을 통해 “외환위기 및 수입 개방

으로 어려운 양축농가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여 축산농가의 사용전력은 100% 농사용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농림부는 축산폐수 시설을 농업용 시설로 인정하고 있으나 한국전력은 산업용 시설로 인정하고 있어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 10월 9일 회신문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축산분뇨시설에 적용되는 전기요율을 산업용에서 농업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와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 본회, “규격돈 출하 경영체 축산경영자금 지원” 확대 건의

### -수출돈 300두 출하농가도 경영자금 지원 요청

본회는 지난 10월 15일 수출용 규격돈을 동일한 업체에 500두 이상 출하한 농가에 대하여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한 업체가 아니더라도 출하두수가 500두 이상을 넘으면 경영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농림부 장관에 건의했다.

본회는 건의서를 통해 “'98. 1~6월까지 육가공 업체에 수출용 규격돈을 500두 이상 합격된 농가에 경영자금 두당 2만원 이내 융자지원함에 있어, 육가공업체의 부도우려 등으로 위험분산 차원에서 2개이상 수출업체에 출하함으로써 농가입장에서는 500두가 달성되었으나 업체에서 500두 미달이므로 자금지원이 안되고 있으나, 농가의 실적을 감안하여 동일업체가 아니라도 합계가 500두를 달성하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본회는 현재 500두이상 출하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물량을 소규모 전업농가들도 규격돈 출하에 만전을 기하고 수출의욕을 돋아주는 뜻에서 300두로 하향조정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한편 농림부는 상반기 동안 동일한 업체에 수출

규격돈을 500두 이상 출하한 농가에 대하여 축산 경영자금을 합격 두수당 2만원씩 지원했다. 농림부는 올해 하반기 실적을 근거로 내년에도 축산경영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 본회, 농림기술개발사업 제3차 기획연구과제 제출

농림기술관리센터에서 농림기술개발사업 제3차 기획연구과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본회는 지난 10월 15일 농림기술관리센터 소장 앞으로 양돈관련 기획연구과제를 제출하였다.

본회가 제시한 기획연구과제는 ▲돼지고기 부위별 소비촉진화 연구 ▲자돈하리 방제에 관한 연구 ▲가축분뇨 자원 활성화 방안연구(농경지 살포촉진화) 등 3가지이다.

본회는 돼지고기 소비의 경우 삼겹살만을 선호함으로써 삼겹은 수입을 하게 되고 반대 급부로 전후지 등은 처치가 곤란, 염가 판매되는 현상은 전체 양돈의 수익성을 저하시키고 있어 삼겹살 이외 부분육의 처치가 곤란하여 전후지를 이용한 육가 공제품 개발로써 부위별 균형된 소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연구해줄 것과, 자돈하리(TGE, PED 등)로 인한 폐사율은 10%를 넘는 상황으로 양돈산업의 경영면에서 수익성에 크게 좌우되는 중요한 질병으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생산비가 크게 오르고, 날로 하리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어 사양관리 개선 방향 제시와 백신 및 치료약품 개발을 보급해 줄 것, 그리고 가축분뇨의 경우 축산분뇨는 값진 유기질 비료임에도 정부의 농경지살포 권장이나 농진청의 지도가 미약한 점과 살포면적이 비현실적임으로 우리나라 토질에서 토양 중 N, P 잔존함량을 연구하여 보다 많은 유기질 비료를 토양에 살포할 수 있도록 연구해 줄 것 등을 기획연구과제로 제출하였다.

## 본회, 「남은음식물 사료화」사업 명칭 사용에 대한 의견 제출

본회는 지난 10월 13일 「남은음식물 사료화」사업의 명칭사용에 대하여 “남은음식물”을 “음식물찌꺼기”로 할 것을 농림부 장관 앞으로 보내는 공문을 통해 본회의 의견으로 제출했다.

본회는 의견서를 통해 “음식물찌꺼기”라는 용어는 과거부터 우리 조상들이 사용하여온 귀에 익숙한 용어이고, “음식물찌꺼기”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먹고난 후 가축에게 먹여온 “자원”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음식물 섭취후 남은 부분을 합쳐 이것을 자원으로 만들기 때문”이라고 “음식물찌꺼기”로 하자는 이유를 밝혔다.

## 본회 제1, 2검정소장 퇴임



정숙근 전 소장



김형균 전 소장

정숙근 제1검정소장과 김형균 제2검정소장이 퇴임하였다. 정숙근 전 1검정소장은 1990년 이래 제1검정소장으로 재직하면서 SEW사업장 건립과 검정소 발전에 공헌하였으며, 우리나라 종돈개량에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10월 19일자로 정년퇴임한 제2검정소 김형균 전 소장도 제2검정소 건립과 검정소 발전에 큰 역할을 하는 등 협회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 특히 김 전소장은 위생적인 종돈의 분양을 위해 종돈장 질병조사 사업을 벌이는 등 종돈의 위생 향상 방안에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

정숙근 제1검정소 전 소장은 9월 15일자로 의원 면직되었고, 김형균 전 소장은 10월 19일부로 정년 퇴임하였다.

## 도협의회, 지부 소식

### 충남도협, 돼지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 논의

충남도협의회(회장 : 김현병)는 지난 10월 9일 (금) 12시에 충남 당진에 소재한 한식당 “풍림식당”에서 10월 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도협의회에는 본회 노영한 전무와 김현병 충남도협의회장, 그 이외의 충남지역 각 지부 임·역원 및 전현직 임원 등이 참석하여 최근 양돈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날 도협의회에서는 최근 돼지가격이 폭락함에 따라 이에 따른 돼지생산 감축 등 농가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논의하였으며,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수출규격돈을 생산하여 수출에 주력하기로 했다.

### 충북도협, 돼지고기 소비촉진 활동 적극 전개키로

충북도협의회(회장 : 김철수)는 지난 10월 14일 (수) 12시에 청주 흥도회촌에서 본회 노영한 전무,

김철수 도협의회장 및 충북도내 각 지부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차 도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도협의회에서는 최근 소비위축에 따른 돼지값의 폭락 대처방안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수출규격돈 생산확대, 돼지고기 소비촉진 활동 적극 전개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 서울지부, 주소 및 팩스 변경

서울지부(지부장 : 오광철)의 주소 및 팩스번호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 변경 주소 : 서울시 금천구 독산1동 1009-18호
- 팩스번호 변경 : (02)809-0986

### 영천지부, 주소 변경

영천지부(지부장 : 김성근)의 주소가 경북 영천시 화룡동 275-2번지에서 화룡동 179-5번지로 변경되었다. 전화 및 팩스는 전과 동일하다.

### 서남지부, 사무실 변경

서남지부(지부장 : 박성화)는 협회 사무실 전세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사무실을 새로이 이전하였다. 변경된 주소는 다음과 같다.

- 변경주소 : 서귀포시 중앙동 253-5번지 2층
- 팩스번호 : (064)763-0489 전화와 동일 **養豚**

양돈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sa-pork.or.kr>”